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1, 2016 Vol. 556



OC교협 제26차 정기총회가 11월 29일 미주비젼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것

OC교협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이호우 목사 인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 담임)가 회장, 조헌영 목사(큰빛감리교회 담임)가 수석부회장에 인준 받았다. OC교협은 상임이사회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를 총회에 공천하면 총회에서 인준한다.

직전회장 민승기 목사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게 시작해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호우 목사
OC교협 신임회장

신임회장 이호우 목사는 "부족한 저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기도 밖에 답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수석부회장 조헌영 목사는 개인적 사유로 한국을 방문 중이라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11월 29일 미주비젼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외에 부회장으로 신현철 기획부회장, 조형수 영성부회장, 박용일 신학부회장, 박재만 행정부회장, 이태종 교육부회장, 남성수 친교부회장, 이서 선교부회장을 공천했고 회원들은 이를 모두 인준했다.

평신도부회장은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이하 OC평연)의 회장이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직 OC평연 총회가 열리지 않아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OC교협 이사회도 특정 인물을 공천하진 못했다.

한편 OC교협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한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교협·남가주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

남가주한인교계 및 한인사회 단체들의 협력과 연합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와 남가주한인목사회(이하 남가주목사회)가 함께 하는 회장단 이·취임식을 11월 27일(주일) 오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남가주교협은 강신권 회장이 이임하고 최순길 회장이 취임했으며 남가주목사회는 엄규서 회장이 이임하고 김영구 회장이 취임했다.

행사는 1부는 예배, 2부는 이·취임식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강지원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기도, 남상국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 성경봉독, 한아름합창단 특별찬양(지휘 이경호 목사), '교회를 위하는 일'(골 1:25~29) 주제 박종대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설교, 심진구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헌금기도, 한아름합창단 헌금송, 한대명 목사(남가주목사회 총무) 광고 등이 있은 후 다함께 '온 세상 위하여' 찬송을 합창한 후 조영제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인도로 진행된 2부 이·취임식에서는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OC교협 민승기 회장과 OC목사회 신임회장 김익현 목사, JAMA 대표 강순영 목사, 남가주목사회 증경 이사장 김재권 장로, 남가주장로협회 이창권 회장 등 남가주 한인교계는 물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재권 회장, 미주평통 임태랑 회장, 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 이사장 조선환 장로,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 및 OC한인회 김종대 회장, 최석호 68지구 주하원의원 당선자 등 남가주 한인단체장들이 남가주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축사, 격려사, 권면의 말씀 등으로 함께 했다.

한아름합창단 뿐만 아니라 김소연 목사외 오픈도어 찬양율동팀, 목사장로부부합창단(단장 박재웅 목사), 에버그린찬양단(단장 정영숙), California Children's Chorale 등은 각각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했다.

강신권 목사는 김종용, 심진구, 송영일, 김영구, 한대명, 지여호수아 목사 등에게 공로패, 크리스천비전 신문사 이정현 대표에게 자랑스런 언론인상을 수여했다.

엄규서 목사는 김재연, 김정두, 김종용, 유당열, 유우길, 정해진, 조천일, 지용수 목사 등에게 자랑스런 목회자상을 수여했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최순길 목사는 그린은신 변호사와 마동환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위촉패를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할렐루야'를 함께 합창한 후 이선자 목사(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축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라크 기독교인들… IS에 빼앗겼던 땅 다시 정결케 되길"

모든 집들이 허물어진 가운데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집을 보수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전쟁으로 찢긴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열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IS로부터 자유케 된 이후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라이프 아가페교회의 성도인 마하르 바바리는 "이번 행사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고향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다.

또 "IS에 의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정결케 해야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이곳에 살던 이들도 돌아올 것이다. 새 영을 믿고 새로운 상황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IS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돌아오길 꺼리고 있다. 그러나 고향에 남아 신앙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들도 있다.

일부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일어서고 있다.

카라코쉬 지역 주민은 무너진 집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주된 기도의 제목은 나의 일상의 평안이며, 카라코쉬가 안정이 되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참석자들 모두가 '할렐루야'를 함께 합창하고 있다.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각종 세미나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둘로스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둘로스선교교회가 이전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평소 둘로스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꼭 오셔서 맘껏 축복해주세요!
■ 일시 : 주후 2016년 12월 11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6가와 Shatto Place)
祝 진유철 목사 초청 신년 축복 성회
주제 :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41:16)
일시 : 2017년 1월 5일(목)~8일(주일)
1월 5일(목)~7일(토) 저녁 7:30
1월 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6가와 Shatto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예배안내 황의정 PhD. 담임목사
장년부
주일예배 1부 8:00 2부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월삭새벽기도회(매월 초하루) 오전 5:20
교회학교
유초등부 주일 11:00 금요일 7:30
중고등부 주일 11:00 금요일 7:30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1:30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교회
둘로스선교교회
Worship Center: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 Office: 548 S. Kingsley Drive. #200, LA, CA 90020.
T. (213)365-2942 www.doulosla.com / T. (323)896-0675(담임목사)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가 창립됐다.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창립돼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소속 미국서남지방회가 11월 13일 남가주벧엘교회에서 창립됐다. 이날 지방회 창립감사예배는 제14차 미주예성 총회(2016년 10월 25일 뉴욕)의 승인을 받아 그동안 미국 서부지역에 지방회 한 곳을 더 신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미국서남지방회 창립감사예배는 오병익 목사(남가주벧엘교회 담임)의 사회로 문장혁 장로(남가주새언약교회)의 성경봉독과 김제임스 목사(워십포도원교회 담임)의 기도에 이어서 남가주벧엘교회의 성가대 찬양과 헤세드 목사의 특별무용, 김영일 목사(섬김과나눔교회 담임)의 설교와 신익현 목사(주심성결교회 담임)의 봉헌기도,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 담임)의 축사,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의 축도로 진행됐다.

창립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영일 목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하는 서남지방회'(전도서 3:1~1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설교를 통해 "뭐든지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지금인 것 같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미국서남지방회를 창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제 우리 지방회는 4대 핵심사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멕시코 선교사인 서경열 목사와 김용인 목사에게 전액 선교비로 지급됐다.

또한 지방회에 소속된 각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기도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방회 임원으로는 지방회장에 김영일 목사, 부회장에는 오병익 목사(목사 부회장)와 문장혁 장로(장로 부회장), 서기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담임), 부서기 박용덕 목사, 회계 신익현 목사, 부회계 강양규 목사, 감사 김제임스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미국서남지방회에 소속된 교회는 총 8개 교회와 675명 성도, 그리고 40여 명의 교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목사 16명, 선교사 2명, 장로 5명, 전도사 10명).

4대 핵심사역으로는 교회개척과 선교, 연합사역과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발굴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회 담임 · 왼쪽) 초청 심령부흥성회가 남가주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 · 오른쪽)에서 열렸다.

감사는 기적 창조하는 능력

남가주벧엘교회 주최…오공익 목사 초청 심령부흥성회

오병익 목사가 시무하는 남가주벧엘교회에서 오 목사의 쌍둥이 형제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회 담임)가 심령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오공익 목사는 11월 27일 주일예배와 함께 열린 심령부흥성회에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가 시무하는 제주중문교회는 1914년 세워진 유서깊은 교회다. 오 목사는 이 교회에서 30년째 목회하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장신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서울장신대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제주열방대학 이사, 제주소아암재단 이사, 서귀포경찰서 경목실장,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그는 11월 21일~12월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일정 가운데 특별히 남가주벧엘교회를 찾아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에는 흠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뉴욕교협 43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31대 이사장 이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혁 향한 뉴욕교협 제43회기 회장단 이·취임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11월 29일 오전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제43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31대 이사장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개혁의 행보를 알렸다.

신임 회장 김홍석 목사는 현재 43회기가 내건 개혁의 의미는 '온고지신'임을 분명히 하며 변화의 의지를 밝혔다.

김홍석 목사는 "개혁이라는 말 속에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는 늬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43회기가 하고자하는 개혁은 기존의 전통 중 고수할 것은 고수하며, 현재 맞지 않는 관행이나 조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는 것"이라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변화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때 보다 강한 때에 43회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직전회장 이종명 목사는 이임사에서 "42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회장을 도와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면서 "43회기가 성공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31대 이사장에 취임한 강영규 장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것"이라고 간략히 소감을 밝혔다.

[뉴욕기독일보]



보국특별기도회에서 이정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CLMM

LA군사랑선교회 보국특별기도회

LA군사랑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가 11월 26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6층 강당에서 조국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위기를 우려하며 조국을 위한 보국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정근 원로목사는 '먹어라 마셔라'(요6:52)란 설교에서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것"을 강조했다.

이어 중보기도회를 인도한 김회창 회장은 조국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군 장병들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를 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Since 1999
www.e-nca.org
Irvine
La Canada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손인식 목사의 은퇴, "배턴 체인지, 무대 체인지"



손인식 목사.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

3 년 전 은퇴한 후,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과 탈북자 구출 및 돌봄 사역에 올인해 온 손인식 목사를 만났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사역을 전반전이라 불렀다면,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대표 사역은 후반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바삐 일하고 있다.

손인식 목사(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Missions 국제대표)가 최근 베델한인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들른 것까지 포함하면 은퇴 후 두 번째로 교회를 방문한 것이고 설교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는 은퇴한 목사가 후임자나 교회 일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해서 힘들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은퇴 목사가 후임자를 배려해 아예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서 성도들이 섭섭해하기도 한다는데 손 목사는 북한 사역을 하느라 바빠서 베델한인교회와 자연스럽게 이별을 한 셈이었다.

손 목사는 "달리기를 할 때 배턴 체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선발주자가 못한 것을 후발주자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델한인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발전했음을 봤고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말한 발전 중 가장 큰 변화는 목회 아이디어다.

"사람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는데 목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현대 목회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런데 후임자인 김한요 목사가 사용하는 목회의 언어와 아이디어를 보니 이제 60대 후반인 나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목회 아이디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소입니다."

목회의 세대교체는 베델한인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많은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가 세대교체를 겪으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근간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보면 전임자들의 실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담임인 줄 착각하거나 교회 성장에 자기 공로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라진다는 불안감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십자가로 알고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대를 주시며 나를 사용하셨고 기한이 차면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된다.

내가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후임자를 존중해야 한다. 후임자도 전임자가 쓰임 받던 무대의 연장 선상에서 자신이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떠난 후에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임자 후임자 간에 상호 이해도 강조했다.

"서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 입장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 목사는 자신의 은퇴 비법을 소개했다.

"일단 저는 은퇴를 일찍 계획했습니다.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지 고민했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지 계획했습니다. 풀타임 목회 후에 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았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공로심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대화했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아내와 함께 이런 문제를 미리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한 나라와 민족을 선교하는 것도 좋고 커뮤니티를 상대로 봉사 사역을 하는 것도 좋다"면서 "목회와 인생 경험, 남아있는 건강을 잘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목사는 일찍 은퇴를 준비한 덕에 북한 선교로 제2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손 목사도 자신이 은퇴하면 북한 사역을 할 줄 처음부터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면으로 길을 열어 주셨다.

지난 3년간 그는 3,500명의 통일 선교사를 동료로 얻었다.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4끼를 금식하며 1만 원을 모아 북한 사역에 헌금하는 이들이다.

비정기적으로 북한 사역을 위해 큰 액수의 헌금하는 이들도 간혹 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교회도 그날까지선교연합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손 목사는 "개스가 부족해 엔진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프리덤 하우스로부터 70만 달러의 기금을 제의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돈 만큼은 거절했다고 한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다. 정부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손 목사는 "70만 달러는 안 받았지만, 돈으로 환산 못 할 7억 달러 어치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운동만 하다가 점차 탈북자 구출 사역으로 확장이 됐고 현재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 사역의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회복시켜 건강한 어머니로 세우는 일, 탈북자 출신 목회자와 리더를 세워 향후 북한을 복음화 하는 일 등이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사역의 분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베델한인교회 시절에도 그저 하나님의 무대에 올랐던 배우였을 뿐이고 오늘은 무대만 옮겨 또 다른 무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에게 은퇴란 배턴 체인지, 무대 체인지 외엔 적당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문의: 949-297-3788
*주소: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웹사이트: www.kccnk.org

김준형 기자



2016 서울 통곡기도회가 9월 28일 역촌교회에서 열렸다. ⓔUTD



손인식 목사가 한반도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UTD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교협될 것”

뉴저지교협 30회기 출범
이 시대는 말씀밖에 살 길 없어


뉴저지교협 30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예배가 11월 21일 오후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30회기를 맞이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시무예배 및 회장, 실행위원 취임예배를 21일 오후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드리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윤명호 목사(부회장) 인도로 김진수 장로(부회장) 기도, 원도연 목사(기록서기) 성경봉독, 권사합창단 찬양, 이은수 목사(뉴욕동산교회 원로) 설교, 강영안 장로(사무 회계) 헌금기도, 사모합창단 헌금송, 육민호 목사(사무서기) 특별기도, 이의철 목사(직전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시무식은 장동신 목사(총무)의 사회로 교협기 인계에 이어 이병준 목사(증경회장) 시무기도, 김종국 목사(회장) 취임사 및 임원소개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회장) 축사, 유재도 목사(뉴저지목사회장) 축사, 조지 포스딕 장로(릿지필드 팍 시장), 이은주 선생 축송, 김종국 목사 감사패 증정, 장동신 목사(총무) 광고, 김정문 목사(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은수 목사는 ‘서로 봉사하는 교협’(벧전 4:7~1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뉴저지교협 임원들이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봉사와 헌신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물려 시작하는 뉴저지교협 30회기는 이번 표어를 ‘성경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교협’으로 정하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뉴저지 교회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신임 회장 김종국 목사는 “이번 30회기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 지금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의 세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로 만드셨다. 이 시대는 말씀 밖에 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교협 30회기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맞아 종교개혁 특별 포럼을 뉴저지목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등 연례행사 외에 종교개혁 특별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욕기독일보]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김상태 목사 선출


신구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부회장 문석호 목사와 (네 번째 신임 회장 김상태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45회기 정기총회가 28일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개최, 신임 회장에 김상태 목사, 신임 부회장에 문석호 목사가 당선됐다.

신임 회장 김상태 목사는 자신의 임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성지순례와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등 학술적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부회장 문석호 목사는 간략한 당선소감으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임하는 직전회장 김영환 목사는 “뉴욕목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마틴 루터 킹 기념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총 4번의 행사를 통해 아틀랜타의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우리 한인들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아틀란타 윤수영 기자]

미션아가페, 홈리스 위해
겨울 점퍼 5백여 벌 나눠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제3회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추운 겨울을 길에서 나야하는 다운타운 홈리스들을 위한 ‘제3회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6백인분의 따뜻한 음식과 함께 500여 벌의 겨울 점퍼를 나눈 이번 행사는 11월 27일(주일) 오후 4시부터 다운타운 소재 아틀랜타 유니온미션센터, 코카콜라 공원 등에서 진행됐다.

미션아가페 폴 디스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임스 송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디캡 카운티 래리 존슨 커미셔너가 축사를 전했다.

제임스 송 대표는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호프쟌스크릭오케스트라의 연주와 K-팝 댄싱 팀의 위로 공연이 진행됐다.

미션아가페는 순수 비영리 한인 단체로서 호세아재단(Hosea Help)과 2009년부터 7년간 함께 개최하

조동혁 박사 칼럼 11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당뇨병과 합병증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저 먼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저 먼 곳에 있는 로또를 살 때는 자신이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저 먼 곳에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라고 믿으며 등안시한다.

필자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만성질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40대에 발견된 약한 당뇨는 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당뇨가 걸려서 자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저 먼 훗날의 문제점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철저한 식단관리와 치료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당뇨가 걸리지 않아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

당뇨 진단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것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당뇨는 신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뇨가 걸렸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사람은 훗날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의 고통을 겪으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2012년 미국에서 조사된 통계를 보면 미국인의 2천9백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

전체 인구의 9.3%, 즉 거의 10명에 한 명 꼴로 당뇨에 걸려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25.9%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당뇨가 보고되고 있다. 노인 4명 중 한 명이 당뇨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반인들에게도 당뇨 증상이 상당히 많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당뇨 증세가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당뇨의 심각성에 무덤덤해지는 불상사를 가져오고 있다. 당뇨병을 처음부터 말기까지 치료하는 의료인들만이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무덤덤해져서 방치하던 당뇨가 결국 큰 합병증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죽음의 길로를 넘나들 때가 되서야 환자들은 후회를 하고, 왜 미리 말해 주지 않았냐며 분노하는 경우도 종종 겪는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 환자들에게 수 년 전부터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 환자들은 남들 이야기일꺼라고, 그리고 의사들이 단순히 환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여겼던 것이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신부전증이다. 그 신부전이 악화되면 결국 투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증가는 투석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당뇨는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그 동맥경화증이 뇌혈관에 오면 뇌졸증이 발생하고, 심장혈관에 오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하지 혈관에 동맥경화가 심하게 오게되면 말초혈관질환이라한다.

미국에서 사고로 인한 수술을 제외한 다리절단수술의 가장 많은 이유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다리절단수술이다.

당뇨 합병증은 서서히 진행된다.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말기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 순식간에 환자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이러한 합병증 환자들을 보살피며, 당뇨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치료하는 의사로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당뇨약 복용을 통한 당뇨의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당뇨,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감사예배
2017년도 “기도로 섬기는 오렌지카운티교협”

May People ever Pray for God And Bless him all day long

금번 제26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브레아에 소재한 나침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한해 동안 수고하셨던 직전 교협 임원진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2017년도 회장단 및 이사회와 임원진들이 내년에도 더 많은 주님의 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26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직전회장 민승기 목사


신임회장 이호우 목사


직전이사장 민경엽 목사


신임이사장 김기동 목사


후원이사장 전준홍 장로

▪**일시** : 2016년 12월 4일(일) 오후 5시
▪**장소** : 나침판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버가모 교회와 날선 검

요한계시록 2:12-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심으로 그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가꾸어 하늘소망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가꾸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가꾸어 가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준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늘 소망 가꾸어가게 하는 교회에서 양날 선 검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와 짝하여 온갖 죄악을 일삼는 모습으로 범죄와 타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칼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3:22에 일곱 교회가 전형적 모형으로 소개되어지면서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문맥 가운데 그 교회의 실질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목자에게 편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내륙도시로서 서머나교회에서 26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문화와 상업이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본문에서 '사단의 위'로 표현된 여러 가지 우상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마다 무녀들이 있어 점 쳐주고 돈을 받으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로마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전각을 두 개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에 초청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올무잡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 잡혀 가지 않기 위해 피신하거나 굴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가기도 했지만 잡혀간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 같이 참여해 절하고 음식을 나눠먹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버가모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는 성격이 강직하고 예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삼분의 일 정도는 이 목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절대로 미신 우상에게 절하거나 나쁜 죄들을 짓지 않았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신앙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쉽게 어울리고 휩쓸려 본문 14~15에 기록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안디바 목사도 황제숭배를 위해 제사드리는 제단에 초청을 받게 되고 결국엔 끌려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믿음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음식과 술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안디바를 죽임으로 황제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어떤 처결을 받는지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기에 놋쇠로 얇게 소 모양으로 만든 틀 안에 안디바를 넣고 높은 곳에 메달아 놓고 아래에 불을 피워 놋쇠를 달궈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버가모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한 체험적 신앙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의 사명을 위해 미리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신 일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왕 발락이라는 자가 산에 올라가 애굽에서 나온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민수기 22:12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가기를 꺼려했으나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줄테니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오고 있는 저들을 저주해 모두 전멸시켜 달라는 부탁에 하나님께 재차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셨으나 민수기 22:22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타고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길을 가니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이때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도록 다짐하고는 발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의 탐욕에 못이겨서 길을 떠났던 발람의 잘못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 번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19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했던 말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만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발람의 행동을 금지시켰을 때 비로소 눈을 떴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모압 왕이 세 번씩이나 자리를 바꿔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민31:8).

니골라당의 교훈도 영적인 올무와 함정으로 악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는데 그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이단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당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율법무용지론을 주장했고, 둘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 된다고 해도 육체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악한 것 뿐이고 영으로만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 육체는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으며,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심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데 훗날 영지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상하고 썩어가는 심령을 도려내어 살리시고자하는 수술하는 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19~20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칼은 심판과 형벌의 칼입니다.

버가모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칼도 심판을 위한 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대다수가 신앙인격도 줏대도 없이 진리도 모르고 하늘소망도 없어 오히려 신성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마귀 앞잡이와 같은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현실적인 안주(安住)와 기회주의자들처럼 세상에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없애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없애버리시는 멸망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영적음란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회개하여 더 이상 영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제7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7차 정기총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축복교회 (1501 W. Washington Blvd. #104. Los Angeles, CA 90007)

연락: (323)702-6709 회장 강지원 목사

등록비: $20 (필수)

입후보 제출서류 마감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5시까지 은혜와축복교회(1501 W. Washington Blvd. #104. LA, CA 90007)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강지원 목사(323-702-6709) 총무: 정경희 목사(323-735-9191)

E-mail:kangkang862@gmail.com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6년 12월 31일(토)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칼빈국제대학교
Calvin International University

개교 기념 강좌 및 2017년도 박사학위과정 현장 세미나

▸개교 기념강좌: 21세기 건강한 교회와 전도사역
- 시일 : 2016년 12월5일(월)-8일(목) 오전 9시~12시
- 강사 : 김연택박사 (칼빈국제대학총장)
  Danny Daniel 목사 (새들백교회 전도목사, 빌리그램 전도단 부흥사)
- 장소 : 새들백교회 캠퍼스, 칼빈 국제대학교 세미나실
  1280 W. Lambert Rd.Suite D-2 Brea,CA92821
- 등록비 : 1인당 $80.00 (당일 등록가능)
- 참가문의 : 김연택 박사 (616)795-8047, 이우천 목사 (213)327-6646



김연택박사는
1975년 Logos 승선 한국 OM 최초 선교사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사역과 미국과 한국에서 40년간 목회와 교수사역을 하였다. 황해도 연백출생(1947)으로 관동대학교 신학과 (BA), 총신대학교 (M.Div. 과정), 영국 런던 WEC 선교 대학원 (Dip. Miss.), 미국, Fuller 선교대학원 (M.A), Calvin 신학 대학원 (M.Div.Th.M.), 네델란드 자유 대학교 (Ph.D.)를 졸업하고, 미국 Calvin 신학대학원, 화란 Tyndale 신학대학원 교수, 대한 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교회가 21세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새들백교회와 윌로우크릭교회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였고 저서로는 "한국 종교와 교회성장" "Protestant Church Growth in Korea" 영한대조" 내 영혼아 깨어라" 외 다수의 역작이 있다. 1977년 독일 간호원출신 조숙자 사모와 영국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성장한 자녀, 한나, 요셉, 사라, 백희를 두고 있다.

▸종교개혁 500 주년기념 개혁주의 현장 세미나
- 일시 : 2017년 1월 23일 (월)-2월 23일(토)
- 인솔및지도교수: 김연택박사, 현지 독일대학교수
- 방문지 : Amsterdarm,Witernberg,Worme,Strasbough, Zurich Gerevs, Paris, Brussel 등
- 대상 및 참가인원 : 신학생,목회자,등록순12명
- 참가비 : $3,590 (항공료포함,LAX/ ICN 출발기준)
- 신청마감 : 2016년 12월 10일

www.calvinuniversity.org

●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IV)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사회적 신분 계급이 뚜렷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계급이 그것이다.

선비는 존대를 받고 기술자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시하거나 하대했다. 더구나 천민 계급, 그 중 노비나 백정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는데, 당시 노비 1인 값은 말 한 필 값 정도밖에 안 됐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결코 차등을 두시거나 계급을 두시지 않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점을 교회는 강조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루어 낸 사회개혁 중, 인간평등을 위해 애쓴 것만큼 큰 공헌을 한 것도 없다.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고아, 병자, 신체장애인, 노약자 등에 적극적 구호활동을 펴게 했고, 그들을 위한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 조정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23개 조항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조항 가운데, - 문벌 반상(班常) 등급을 없애며 문벌 등에 구애하지 말고 인재를 뽑아 쓴다. - 공·사 노비의 법전을 혁파하고 그들의 매매 행위를 금한다. - 역인(役人), 창우(倡優), 피공(皮工)도 모두 면천(免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노비제도나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는 철폐했으나, 실제 아주 미흡한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에 대한 전도를 강화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천대받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나오는 일이 잦았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에게 교회는 관심을 갖고 인간 대접을 받게 하고 그들 해방을 앞장 서 고취했다. 오랫동안 불교문화에 젖어 있던 한국 사회는 불가에서 살생을 금하는 규율을 어기고 짐승을 잡는 백정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 이런 시각은 육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까지 연장됐다. 고종황제의 시의(侍醫) 에비슨(O.R. Avison)이 선교사 무어(S.F. Moore)가 목회하던 곤당골교회(현재 승동교회)에 출석하던 백정이 장질부사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직접 가서 치료해 준 일이 있었다.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집에 가서 백정을 치료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백정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갓을 쓸 수 있게 됐고, 나중에는 호적까지 갖게 돼 명실공히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여러모로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차별 문화와 계급사회 척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였다고 평가된다.

1894년 갑오경장 때 전통적인 노비제도가 철폐된 것도 선교사들의 공헌이었다. 에비슨은 당시의 내무대신 유길준(俞吉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내무대신 각하, 한국의 백정들이 극히 하잘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능한 사람들이고 지능이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들에게 한국에서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영예로운 관습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 내에 도량이 넓고 진보적인 인사가 많은 차제에 감히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생각이며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온 백정들에게 정의로운 조처가 취해진다면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길준은 즉시 전국에 "지금부터 백정들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백정들은 한국 남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령을 공포하고 백정 차별 정책을 철폐했다. 백정이 사람대접을 받는 세상이 도래된 것이다.

백정뿐만 아니라 갖신(皮靴), 즉 가죽신을 만드는 갖바치와 숯장수, 광대, 무당 등도 이 천민 계급에 속했다. 서울 연동교회의 장로였던 고찬익(高燦益)과 임공진(林公鎭)은 갖바치와 광대 출신들이요, 후일 상동교회 목사요 애국지사였던 전덕기(全德基)는 숯장수 출신이었다. 1903년 감리교 연회록에서는 노예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1. 교인은 노예를 소유할 수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예제도를 교사(教唆)해서는 안 된다. 2. 만일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를 해방해 주도록 지시한다. 3. 과부를 매매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 범죄에 참가한 교인은 심의를 거쳐 처벌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고 만민 평등사상을 실천한 예로 자기 종을 해방시킨 기사를 「그리스도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한 일이 있었다.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노임을 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엇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류를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함이 올치 아니한 줄을 만히 깨달른지라…순안 박인시 씨는 그 종을 속량하야 딸을 삼았고, 평양 서촌 창마을 사는 리씨는 주를 밋기 전에 일개 비자를 천 여금을 주고 사다가 부리더니 자긔가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닷고 그 종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 말슴을 생각 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거시 늘 마음에 불안하고 다시 팔자 한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거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한다."하고 문셔를 내어 소화하고 친딸 갓치 사랑한다 하니 이 세상 사람의 동류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에게 비하면 깁게 생각하고 넓게 사랑함이 몃백 층이 놉흔지라 그윽히 착한 마음 생긴 거슬 궁구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씨를 밋고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부터 나온 거시니 이런 거룩한 일을 우리나라 이천만 동포들이 마귀와 사람의 종을 속량할 본이 될 터이니 입으로만 사랑하고 모양으로만 개화한 사람의 마음을 곳치기를 바라나이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잘못된 사회관습이나 전통을 혁신하는 큰 힘을 갖고 있음을 이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모두 허무는 역사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정운길 칼럼(6)

많이 웃으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성령의 웃음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깊은 내적치유 및 회복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도록 내보냈던 70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기뻐할 이유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 웃음은 내적 치유의 표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증거이며, 어린아이도 변하게 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며, 억제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부여한다.

웃음은 질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효과가 있는 핵폭탄과도 같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늘 웃고 사는 게 좋다. 억지웃음도 90%의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주 웃고,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증이나 대인 공포증, 불안이나 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즐거움이 몸에 유익한 좋은 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6:11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의 길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할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지옥의 형벌을 면제 받게 되어 기뻐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쁨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다.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는 웃음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혼의 찬란한 빛이며, 믿음의 향기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이다.

웃음을 3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웃음은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이다. 둘째 웃음은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항상 자주 웃어야 한다. 셋째 웃음이란 고정 관념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고 반전의 미학이다.

생각의 종합이 그 사람이다. 행복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울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다. 웃음만 생각하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웃기로 작정해 보자.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10가지로 간추려보면 1. 웃을 때 침의 분비량을 늘려 소화를 돕는다. 2.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거나 가래가 잘 나오지 않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3. 한바탕 웃음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4. 당뇨병이나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5. 한바탕 웃음은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한다. 6. 웃음은 근육과 골격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7. 웃음은 심한 두통이나 허리통증에 좋다. 8. 우울, 불안, 분노,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9. 면역계가 강해져 암을 예방할 수 있다. 10.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엔도르핀을 발산케하여 정신을 맑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감정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기억력을 증진시켜준다.

이 밖에도 웃을 때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을 때 내인성 마약성분인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놀린이 분비되어 부작용이 없는 천연마약성분에 의해 통증이 사라지고, 웃을 때 뇌파가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면역성과 생체 자연치유력이 증가되어 많은 질병이 그냥 없어진다고 한다. 웃음의 1, 2, 3, 4, 5는 다음과 같다.

1. 일단 웃어라. 2. 이왕이면 크게 웃어라. 3. 삼척동자처럼 웃어라. 4.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라. 5. 오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웃어라.

진정으로 잘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에 탁월한 효능!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갸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1.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2.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킹청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목회자들이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설교, 스스로를 감동시킬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라

예장 합동, 2017년 목회계획 및 전략 주제로 특별세미나 개최

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교육부 주최 제12차 총회목회자특별세미나가 '이제는 함께 성장합시다(행 6:7)'라는 제목으로 11월 28일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5백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2017년 목회계획 및 목회전략 공개'를 주제로 특징 있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개회예배 후 교육부장 김기성 목사의 '2017년 총회교육부 교육정책' 기조강연 후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담임)는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배만석 목사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꿈꿀 수 있고,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변화의 결단을 갖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순환구조가 완성되고, 이는 찬양과 기도, 헌금과 설교가 준비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목사는 "잘 준비된 예배란 하나님께서 목적 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예배"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우리의 사랑과 마음의 고백을 올리는 '드림'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받음'으로 나눠 찬양과 대표기도, 헌금과 설교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찬양에 대해 "'찬양은 설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마음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며 "찬양은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대표기도와 관련해선 "개인기도와 달리, 대표기도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예배시간이라는 틀 안에 들어있는 요소임을 감안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헌금에 대해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에(마 6:21), 감사는 신앙의 수준이고 그 감사는 헌금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받음'의 요소인 설교에 관해 "설교자의 준비는 설교문 자체가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스스로를 감동시킬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참가자들이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 위한 구국의 기도, 서울 이어 지방으로 확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원로목회자들이 얼마 전 서울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강원지역에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가 주관한 '강원 지역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소속 원로목사 40여 명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영월 한반도교회 등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시종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차로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지형 전망대 앞에 모여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치며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드렸다.

한편 이상모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한다"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원로 목회자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가나안 성도 현상 …누구의 책임인가?

평신도 500명 대상 조사, 약 3분의 1이 "떠날 의향 있다"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주최한 '평신도의 교회선택과 교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 세미나'가 11월 25일 오후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과 '왜 교회를 이탈하는지', '가나안 성도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지' 등의 한국교회 생태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개신교인 500명을 중심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일성수를 한다"고 답한 사람은 68.5%였으며, 한 교회를 비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18.6%), 출석하지 않는 사람(5%) 등 '비전형적인 교인들'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한 요소는 집과의 거리(20.1%), 모태신앙(17.7%), 담임 목회자의 설교(17.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 역시 집과의 거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 분위기'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연령에 따른 교회 정착 요인으로는 20·30대 젊은 층에서는 거리를, 40·50대는 목회자의 설교, 60대 이상은 목회자의 인격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회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배 분위기'가 6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목회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교 내용'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격', '교회 행정' 순이었다.

교회를 옮길 의향에 대해서는 55%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8%는 "떠날 생각이 다소 있다"고 응답했고, 4.8%는 "떠날 생각이 매우 많다"고 응답해 조사 대상자 중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를 떠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61.3%만이 "다른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2.1%는 "개신교인으로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5.3%는 "다른 종교로 갈 것"이라고 응답해, 27% 정도의 교인이 떠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22%(전체의 6%)가 일명 '가나안 성도(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나안 현상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책임'(73.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8%만이 '떠나는 사람 자신'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60대 이상은 81.4%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했으며, 중직자들 역시 83.8%가 같은 응답을 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교수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계에 1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나안 성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말하며 "가나안 현상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은 떠나는 사람의 문제이고 심지어는 이들이 교회 반대 세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신도들의 상당수는 반대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교회 중심의 사고를 넘어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적·물질적 자원이 풍부한 중대형 교회들은 거시 차원에서 교회 공신력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작은 교회들은 지역 운동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애 기자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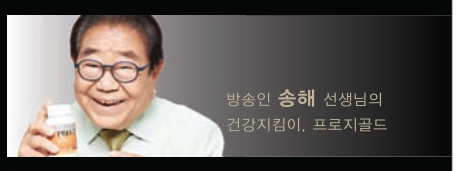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빌리 그래함…바이블 코드와 미래 예견은 허구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지난 11월 19일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그래함 목사는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질의응답 란에 올라온 "바이블코드 이론과 기독교인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지 대한 질문에 대해 "바이블코드는 타당하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질문자는 "내 친구는 성경이 어떤 비밀 코드에 따라 쓰여 졌다고 믿는다. 또한 이 안에 미래에 대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래함 목사는 "바이블 코드란 허구이다. 또한 이를 말하는 사람과 그의 주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 한 컴퓨터 전문가가 어떤 문학 작품에든 비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충분히 그의 분야에 노력했다면, 강력한 컴퓨터가 나왔을 것이다"라며 "'바이블 코드'란 개념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함 목사는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듣는 이들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 또한 그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합2:2)

선거 전 몇 달 동안, 성경 코드 지지자들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한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를, 또 다른 이들은 힐리러 클린턴이 승리할 것이라 주장했다.

기독교변증론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매트 슬릭은 "바이블 코드에 대한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라며 "성경에 매우 흥미 있고 설득력 있는 숫자 패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이블코드 개념이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념을 모비 딕같은 일반적인 책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바이블 코드라는 개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소피아 기자

2016 美대선은 '변화'에 대한 열망

트럼프 당선 공신들…침묵하는 다수 백인들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직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막판 선거전략은 이른바 '침묵하고 있는 다수(Silent Majority)'를 향한 것이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마지막 선거비디오로 '우리 모두는 '침묵하는 다수'라며 정치인, 엘리트, 세계주의자(Globalist),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되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 '침묵하는 다수'들의 지지로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침묵하는 다수는 누구일까? 이번 대선 출구조사를 분석하면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제조업, 탄광 등에서 종사하는 블루칼라(Blue Collar) 노동자이며 신앙적으로 복음적 기독교인인 '백인'들이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대로 많은 백인들의 표를 받았다. 백인들 중 58%가 트럼프를 찍었고 클린턴을 찍은 백인은 37%로 차이가 21%로 역대 최대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대선에서 백인 표 중 20%차이로 승리했고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역시 20% 차이로 백인들의 표를 많이 받았지만 패배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미트 롬니가 백인들의 많은 표를 얻고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당시 공화당에서는 백인표만 갖고는 안된다며 인종적으로 소수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계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유권자에서 백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줄자 이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 백인이 미국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 86%, 2012년 72%, 이번 2016년에는 70%다. 당시 공화당은 소수 인종 담당팀을 구성하고 흑인, 라티노, 아시안계 지도자들을 워싱턴 DC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이런 상황에서 라티노가 대다수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하고 불법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목소리를 트럼프가 내자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라티노, 아시안계의 표를 얻지 못하겠다며 남은 것은 트럼프 패배라는 것이 선거 전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백인들, 특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플로리다 등 부동(swing)주에서 많은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으면서 이들 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오하이오는 백인이 전체 유권자의 62%인데 트럼프는 이들 중 27% 차이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승리했다. 플로리다에서도 백인이 전체 유권자의 62%인데 트럼프는 이들 가운데 64%의 지지를 받으며 이겼다.

이 부동주들은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아 녹슬어 있어 '러스트(Rust) 벨트'로 불리는 곳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것은 자유무역으로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제조업, 석탄업 등에서 일하는 시골 지역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유효했다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트럼프가 대선 중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언급하는 등의 입장으로 라티노들이 대거 클린턴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도 맞지 않았다. 29% 라티노들은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것은 롬니가 2012년 대선에서 27%의 라티노 표를 얻은 것보다 많은 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71%의 라티노 표를 받았는데 이번에 클린턴은 65%을 얻었다.

트럼프는 3번 결혼하고 카지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번 대선에서 공개된 성추행 언급 비디오 등으로 전체 유권자의 26%을 차지하는 복음주의(Evangelical) 백인 기독교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 81%가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것이다.

이번에 81%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찍은 것은 지난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얻었던 78%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다.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의 몰표는 낙태, 종교의 자유 등에서 미국사회의 방향을 정할 연방대법관 임명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음주의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연방대법관은 한 자리가 공석이다. 나머지 8명의 연방대법관은 진보 4 대 보수 4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보수 혹은 진보로 가느냐가 달려있었다. 현직 연방대법관 중 3명이 83세, 80세, 78세로 고령이라 차기 대통령은 이들의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가운데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겠다며 21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낙태를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판사들이었다. 또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정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친 생명 입장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2016년 미국 대선은 '변화'(change)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 백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케이마메리칸포스트]

교회맛집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웰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지난 2013년 페샤와르 올세인트교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127명의 기독교인들 희생자들이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 월드와치모니터

파키스탄 정부, 기독교 방송 금지

11개 기독교 TV 방송국 폐쇄 조치

파키스탄 정부가 11개 기독교 방송국을 폐쇄했다고 英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UCA 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언론규제당국(PEMRA)은 지난달 모든 지역 방송국 관리들에게 "11개 불법 TV 채널의 방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하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메시지 등 예외적 내용을 제외하고 종교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주요 기독교 방송국들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 결과, 인도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던 6명이 단속원들에게 체포됐다.

폐쇄된 방송국 가운데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국인 이삭 TV와 라호르시에서 운영 중이던 가톨릭 TV도 포함됐다.

가톨릭 TV를 설립한 모리스 자랄 신부는 인터뷰에서 "기독교 TV 방송국의 폐쇄 조치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 지역의 교회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키스탄 내 기독교 방송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다. 우리는 다른 TV 채널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가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 방송국을 폐쇄한 가운데, 지하드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평화 TV'는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英성공회 사제, 내년 '성소수자 성찬식' 집례

보수적 교인들 우려…매우 혼돈스러운 메시지



레이첼 트레위크 주교

ⓒ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갈무리

영국성공회 고위 사제가 내년 1월 성소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성찬식을 집전할 계획이라고 英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로스터 교구의 레이첼 트레위크 주교는 영국성공회 동성애긍정네트워크에 소속된 포용교회(Inclusive Church)가 마련한 성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성공회의 교구 사제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적인 성공회 교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글로스터 교구 대변인은 "레이첼 주교가 성찬식을 집전하기로 한 것이 맞다"면서 "레이첼 주교는 사역의 일부분으로 교단 내 여러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집전해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로운 동료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다"라고 전했다.

포용교회 사이먼 사르미엔토 대변인은 英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및 리버풀 교구는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은 전혀 불법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온전히 목회적인 활동이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안식처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단체인 영국 전세계성공회미래회의(GAFCON UK) 태스크포스를 맡은 제임스 페이스 사제는 "레이첼 주교의 성찬식 집례 소식은 매우 혼돈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英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덕에 관한 한 가지 원칙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른 것을 축복하고 있다. 영국성공회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성공회가 람베스 1.10으로 알려진 성에 관한 1998년 결의안에서 정해진 가르침을 심각하게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갖는 대신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글로스터 교구 내에서 포용교회의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수 그레이토렉스 사제는 "레이첼 주교의 성찬식을 매우 기다렸다"면서 "이번 성찬식은 성소수자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성공회 의식으로 세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례식은 내년 1월 15일 글로스터의 세인트 바르톨로뮤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인 살해 무슬림들, '교수형' 선고

'신성모독' 혐으로 무슬림 이웃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파키스탄 기독교인 부부가 마침내 억울함을 풀게 됐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샤흐자드 마시와 그의 임신한 아내인 샤마 비비를 공격하고 살해하는데 동참했던 이들 중 5명이 라호르의 지역 법원으로부터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

공격에 동참했던 8명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부의 가족들을 대변하고 있는 리아즈 안줌 변호사는 "판결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부부를 끌고 가 폭행하고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8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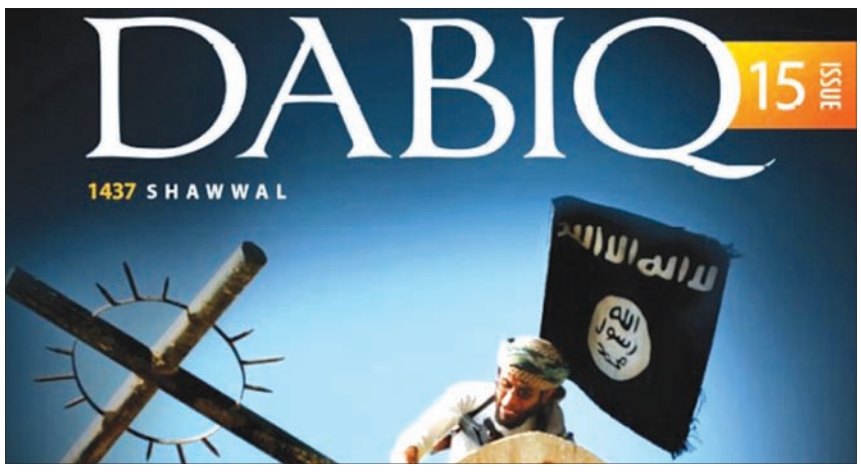
이들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 조각을 가마에 던져넣었다는 거짓 고소를 당한 후, 가마로 끌려가 안에 갇힌 채 불태워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가마에서는 까맣게 탄 뼈만 발견됐다.

꾸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신성모독죄는 무슬림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겨진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샤흐자드의 아버지가 다른 언어로 기재한 책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슬림 이웃들은 이를 꾸란으로 오해하고 부부를 공격한 것이다.

이번 공격에 가담한 13명은 처벌을 받았지만 다른 90여 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혜진 기자



이슬람국가(IS)의 선전매체인 〈다비크 15호〉는 "십자가를 파괴하라"(Break the Cross)는 제목을 다루고 있다.

신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숴뜨릴 것

IS 떠나간 모술에…기독교 박해 흔적 여실히 남아

이라크 북부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로부터 해방된 후,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IS의 끔찍한 실체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모술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역인 카라코쉬에 소재한 한 상점의 벽에는 "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부숴뜨릴 것"이라는 글이 붉은 색으로 적혀 있었다. 현지 교회에 들어서자 예수상의 목이 잘려져 있고, 성경은 찢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카라코쉬는 한 때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은 도시였으며 이라크 기독교 공동체 인구의 1/4 가량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IS가 마을을 통제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마을을 떠나든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무거운 세금을 내든지 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고, 수 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떠났다.

이후 IS는 니네베 평원의 여러 마을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2년 동안 IS의 지배 아래 있던 시간은 기독교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남겼다.

한 기독교인 남성은 "만약 내가 젊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이에 무엇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이라크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며 절망했다.

지난 10월 30일 모술이 회복된 이후, 수 십명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성모 수태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모술에서 태어나 자란 시리아가톨릭교회 부트루스 모쉐 사제는 "오늘 카라코시는 다에시(IS를 일컫는 아랍어)로부터 해방됐다.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희생시킨 분쟁과 차별, 선동 등 다에시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 사이에 놓인 정치적·종파적 분쟁과 분열 등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종교자유' 위해 기도해야 할 3개 국가

이라크·나이지리아…그리고 결혼·개종까지 강요하는 파키스탄

최근 美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英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3곳의 국가를 소개했다.

◈이라크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지난해 수도로 정한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Mosul)에 대한 기도가 절실하다.

모술의 기독교인과 소수민족 야지디족, 무슬림들은 무장조직 지하드(Jihad)의 근거지로부터 피신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IS가 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라크 난민들은 영국에 있는 안전한 유엔난민기구(UNHCR) 캠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영국의 이민 정책상 시리안 문서를 소지한 이들만 이민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에 IS가 주둔하고 있어 이라크 난민들에게 영국행은 선택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이지리아

무슬림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기독교단체들을 겨냥한 산발적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결성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수차례 장악에 실패했음에도 끊임없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에 저지른 테러로 4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보코하람은 지난 13일 마을 5곳을 공격해 8개의 교회를 포함해 총 12개의 건물이 화재가 났다.

일부 파키스타인들은 보코하람에 잡혀 감금을 당한다. 이들은 탈출에 성공해도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코하람 대원들에게 성 학대를 당해 임신한 여성들은 대개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어느 곳보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많은 국가다.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소재의 아우랫재단(Aurat Foundation)은 매년 700명에 달하는 파키스탄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국교인 이슬람교를 제외한 기독교 등의 타 종교를 대상으로 한 악명 높은 신성모독 관련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독교 여성은 지난 2010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50만 명 이상의 파키스탄인들이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소라 기자

IS, 오하이오 주립대 테러 주장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11월 28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테러 감시단체인 시테(SITE)가 밝혔다.

시테는 11월 29일, IS가 자체 선전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공격을 실행한 이는 IS의 병사로 우리에게 맞서는 국제 동맹국의 국민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으라는 요청에 응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이 학교 학생인 압둘 라자크 알리 아르탄(18)은 전날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번 사건으로 11명이 다쳐 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은 차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렸다. 용의자는 긴급 출동한 교내 경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아르탄의 단독 범행으로 보면서도 그가 범행 직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반(反)무슬림 정서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에 주목해 테러 연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아르탄은 페이스북에 "미국은 다른 나라, 특히 무슬림 움마(이슬람 공동체) 방해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또 "만일 우리 무슬림이 '외로운 늑대' 공격을 중단하길 원한다면, 평화를 만들어라. 무슬림에게 평화를 주기 전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잠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추수감사절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여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객감사 특선상품

조슈아 트리 온천 여행

1박 2일 ▶12월 15일 $99

추수감사절 연휴 여러분들의 넘치는 관심과 사랑덕에
푸른투어 LA지사가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획기적인 상품과 압도적인 모객"으로 여행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듣게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여행을 만들고
새로운 여행문화를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푸른투어 LA지사 임직원 일동 -



겨울특선 1

북해도 7일 北海道

온천+동경까지
▶2/15 $2,999
1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인솔자 동행
2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리필 특선!

겨울특선 2

퀘벡 5일

나이아가라 폭포+스키
▶12/16,23,30 1/13,20,27 $1,399
1 북미의 잉글랜드,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2 와이너리 투어

겨울특선 3

오로라 5일

알래스카 기차여행
▶목요일 (12/1 부터) $1,300+항공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옴니 칸쿤 - 오션뷰 보장!

에메랄드바다의 옴니 리조트와 함께하는
치첸이사&칸쿤 4일

▶1차 특별출발 : 1월 16일
▶2차 특별출발 : 2월 13일
$1,199 +항공포함

5성급 올인클루시브 가족형 호텔
올인클루시브(무제한 식사/음료/주류 모두포함)

3박+공항 왕복서비스+치첸이사 투어(한국인 가이드)



악어사파리 투어

중미의 진주~ 가족여행을 떠나보세요~
청정 코스타리카 5일

$1,499 → $1,399 +항공포함
▶특별출발 : 1/23
코스타리카 3박 4일 ▶12/20 $920 +항공
코스타리카 4박 5일 ▶12/21,22,23 $1,030 +항공
아레날 화산 / 따바콘 노천 온천욕을 즐기세요
▶ 4명 이상 출발 가능 / 그외 날짜 문의

아시아

아시아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홍콩	4일	-방콕/파타야	5일
-앙코르왓	5일	-대만	4일
-싱가폴	5일	-싱가폴/바탐	5일
-푸켓	5일	-세부	5일
-발리	5일	-코타키나발루	5일

-동남아 일주 (홍콩/방콕/싱가폴) 9일
-하롱베이/앙코르왓 6일
-하롱베이/하노이 5일

중국

중국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북경	4일	-계림	5일
-장가계	5일	-서안	4일
-항주/서당/상해	4일	-중국일주	11일

-북경/계림/장가계/서안 8일
-계림/장가계/서안 6일
-계림/장가계/서안/항주/상해 9일

인도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문화탐당 11일

▶1/15,2/19,3/19 $3,450



- 카쥬라호 포함, 푸른투어 만의 차별화된 인도 특선
-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무굴왕조의 사자한왕의 걸작품 타지마할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1등 아메리카 대륙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화/토 출발	$689



"업계유일! 재학생 입학정보안내"

명품 IVY 리그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미서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 / 토		

고객감사 한정 특가!

세도나 3일 $149



▶ 12/5, 12, 19 [단 3회]
[세도나 트롤리/슬라이드 락 선택가능]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 / 성요셉 성당 / 노틀담 드캅 성당 / 몽모렌시 폭포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4)

여리고…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上)


여리고의 만년된 망대.


삭개오 뽕나무.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

◈여리고 가는 길

여리고(Jericho)는 요르단 강 서안에 있는 BC 10,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예루살렘 북동쪽 22.37마일(36km), 요르단 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서쪽 9.32마일(15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해면보다 820피트(250m)나 낮다. 쿰란에서도 가깝고 1번 국도와 이스라엘 남북을 이어주는 90번 도로 상의 중요한 지점이다.

순례객들은 대개 사해지역 쿰란에서 북상하면서 만나는 곳이고, 요르단에서 느보산(Nebo Mountain)을 거쳐 알렌비 국경(Allenby border)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각종 과실수(특히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로, 예로부터 종려나무 성이라 불려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여리고는 만년 된 구조물이 발굴 되어진 것으로 미루어 도시 역사를 만년으로 생각한다. 연중 강우량이 100mm에 불과한 사막과 농경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주변에 6개의 샘을 통하여 충분히 물이 공급되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

◈고립된 여리고

본래 요르단 영토인 여리고는 1967년 6일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후 줄곧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도시 중 하나로 이스라엘 점령에 맹렬히 싸우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출입금지 지역이고, 외국인들도 검문소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00년 9월 28일 2차 인티파터(팔레스타인 무장봉기)로 인하여 한동안 여리고는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2004년 10월 아라파트 사망이후 팔레스타인에는 새로운 지도자 아부마젠이 선출되었고 매일같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테러도 멈추었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곳곳마다 보안장벽이라는 9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기는 했어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분위기인 것 같다. 이제는 여리고를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리고는 고립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망 속에 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경 속 이름은 여리고이며 현지 아랍인들은 아리하라고 부른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BC14세기경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여호수아 6장).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보다 남쪽 3.7마일(6km)쯤에 있는 툴룰·아브엘 알라이크라고 부르는 폐허이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겨울궁전이 있던 곳이며, 세리 장 삭개오의 회심과 구원이 이궈진 곳이라고 한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셔서 처음으로 정복케 하신 도시이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수기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도시에 접근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본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다.

학자들 중에는 라합은 기생이 아니고 달 신을 섬겼던 여리고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 사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라합의 신분이 어떠한 가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치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다. 언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의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참 귀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뿐임을 고백하였고, 그 고백은 그녀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성경상의 여인으로 이름을 남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 명을 받았는데 오직 성 주위를 매일 돌되 엿새 동안하고 7일째는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 밖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직 순종으로 이 말씀 들고 나아 갈 때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오늘날 여리고성 무너진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텔 에스 슐탄이라고 부르는 곳이 고대 여리고성이다.

일찍부터 여리고는 달 신을 섬겼던 종려나무 성읍이었고 주변에 산재한 샘들을 통하여 풍부한 관계농업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마을보다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였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로서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함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겠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라는 것 밖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오늘날 여리고성 무너진 곳에 올라 가보는 현대인들은 겨우 이것 가지고 하지만 3,400년 전의 문화는 그게 아니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보았던 거창한 구조물을 본 사람은 여호수와와 갈렙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다. 언약궤가 항상 앞서 갔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수6:4) 무너진 언덕 위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벌거숭이 산 하나가 보인다. 바로 이 산 넘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마4장) 기도 후 우리가 보는 산 정상부근에 보이는 헬라정교회(주후 6세기 건축)가 있는 곳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3절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여리고 함락작전의 뜻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리고의 고고학

처음으로 성벽이 건축된 것은 이 도시를 열망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주전 1,400년 전에 있었고 이후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될 때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가 눈을 뽑힌 채 잡혀가고 도시는 파괴되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행정도시가 되었으며 주전 336년 알렉산더의 권력자들에 의해 물이 독점되자 점차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세를 주고 샘을 사용하다 그녀의 사후 여리고를 차지하고 겨울 별장을 건설한다. 헤롯은 여리고 언덕 위에 어머니를 기념한 요새를 만들었는데 "싸이프러스"라고 부른다. 헤롯 사후 아켈라오에게 소유가 넘어갔다. 아켈라오는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 소득을 얻었다. 유대전쟁시 로마 10군단의 본부가 되었고 비잔틴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살았고, 순례객들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십자군시대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후이다.

탄소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해 BC 10,000년경으로 측정된 먼 옛날에 중석기의 수렵민들이 찾아왔으며, 그들의 후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BC 8000년경에는 주민들이 마을 주위에 거대한 돌로 벽을 두르거나, 적어도 어느 한 곳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거대한 돌탑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조직된 공동체로 발전해 있었다.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던 마을은 도시라는 용어에 걸맞게 규모가 컸으며, 주민은 약 2,000~3,000명에 이른 듯하다. 이 1,000년 동안에 생활방식은 수렵생활에서 완전한 정착생활로 발전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농업이 발달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여리고(Jericho)'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나팔소리, 무너지는 성벽을 연상케 한다. 그것은 믿음과 승리의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 회의론자들은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여리고의 유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의 주된 이유는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케년(Kathleen Kenyon)이 지휘하여 수행한 현장발굴의 결과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후기 청동기 시대(Late Bronze Age)에 도시성벽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발굴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는 여리고 성벽의 파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

캐슬린 케년의 발굴 보고서를 편집하고 공동 저술했던 토마스 홀란드(Thomas A. Holland)는 나타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군사적 정복설과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가지고 캐슬린 케년이 내린 결론은, 청동기 말기(BC 1400)에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었다는 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고고학적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 동안 계속 수집되어 온 고고학적 증거들을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이것과는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팩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김치교자 (50개 $20)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Gold Finger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올한올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 종교개혁 500주년 지상 강좌

종교개혁의 비전과 신학사상의 재발견(1)



김 재 성 부총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 종교개혁이 성취한 역사적 업적

위대한 기독교 영웅들이라서 따라가려고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도 역시 죄로 얼룩진 오류와 실수가 많은 죄인에 불과하다.

역사 연구에서는 비평적인 안목과 분석적인 사고, 비판적인 독서가 절실히 요청된다.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지만, 그 배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 섭리라는 보편적 진리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도 이미 사회적으로나 혹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부지런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와 오류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절실했던 상황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목회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으려 했었다는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관행과 권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거의 무시되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적 요구에 대하여 해답을 모색하였었다.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자.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목양적 관심으로부터 출발된 후에, 전체 교회를 재건하는 기독교 신앙이 정립하여 나갔고, 널리 확산되었다. 중세 말기에 내려오던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사상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은 결코 소수의 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엘리트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운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학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목회자들이었으며, 일반 성도들이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서 열심을 내어 성경을 탐구하게 되었다.

먼저 루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는 그 자신이 가르치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되고 있음에 탄식하였다. 그의 목회적 고뇌와 두려움은 중세교회의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루터는 빗텐베르그 대학교회의 출입문 광고판에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에 내걸었다.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었다.

루터의 심각한 고통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은 혁명적으로 비화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로 인하여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일련의 토론 사건들은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로마 교황청의 모순을 지적하고 싸우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심점이자 산파역을 했다.

당대 로마 교황청 학자들과 대립적이던 루터의 선구자적인 고뇌 속에서 실행된 하이델베르그(1518년)와 라이프찌히(1519) 논쟁들은 위대한 역사를 형성하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루터가 시련을 당하는 토론들과 논쟁들은 결국 성경을 재발견하게 되었음을 인식케 하는 사건들이었다. 1521년, 보름스에서 개최된 제국의회에서의 루터의 진술들은 더 이상 종교개혁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한 루터는 최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루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독일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술이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이나, 그의 사상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아데나워 수상이나 칼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복음의 메시지를 새롭게 전파하므로써, 세상에 빛과 희망을 제공하였다.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싸움에 집중한 것이 아니다. 루터가 주장한 칭의론과 같이, 구원론 논쟁을 계속해 나갔지만, 어려운 학문적 만족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교회 내부적으로만 갱신하기 위해서 진리의 다툼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당시 국왕들과 제후들과 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어우려져서 복음의 권위를 사회에 반영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중심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진 신학적 지도력이 핵심에 들어 있었다.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활약한 설교자들과 저술가들이 제시한 바, "신학사상을 중심축으로 삼아야만 그 시대의 정치적 흐름과 사회적 정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 역사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면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관점을 통해야만 유럽 지성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별해 낼 수 있다. 굳이 종교개혁 기념 5백주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종교개혁의 신학사상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나와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에 16세기 지성사 (intellectual history)와 사회사 (social history)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확산되어졌다.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주도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가를 규정하는데 이들 가설들이 기존의 연구들에 도전하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사상들이 끼친 영향과 사회주의 혁명과의 관련성에 주목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스트라우스는 대중들과 공동체의 신념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 신학자가 주도한 종교개혁의 비전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스티븐 오즈먼트 교수는 〈도시들 속에서의 종교개혁〉의 결론 부분에서, "첫 번째 개신교 종교개혁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정신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윌리엄 바우스마는 칼빈주의가 남긴 유산이 지금 현대 사회에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칼빈주의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자본주의와 근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혁명적인 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적 행동주의와 세속화를 위하여,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경험주의를 위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것에 주목하였다.

최근의 종교개혁 연구들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들은 활용해야 하겠지만, 신앙심이 없는 메마른 지성주의와 왜곡된 가설에 빠져서 그저 논쟁적인 역사 연구에 그치고 마는 주장들은 면밀하게 가려내야만 한다. 〈계속〉

• 김병태 칼럼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어느 두 사람이 죽어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사람이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한 천사가 와서 사잇길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천사에게 물었다.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오?"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다. "천국을 향하기 전에 당신들이 걸어온 길의 자취를 돌아보라!"

둘 중 한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가 웃고 즐기고 편했던 지난날의 자취는 온갖 쓰레기와 가시밭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시오!" 물론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다른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았다. 지나온 과거가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의 길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흘린 눈물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가 당한 괴로움과 고통은 온갖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그가 당한 아픔과 고통은 '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쁨을 가지고 천사가 가르쳐 준대로 다른 길로 걸어갔다. 물론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 갈래 길에서 운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시기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휘몰아치던 시기다. 이때 성도들은 두 가지로 갈라졌다. 환란과 시련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무릎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

두 부류의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한다.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히 6:7).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다(히 6:8).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면 '저주'를 받는다.

인생은 그렇다. '복 받을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불행으로 치닫는 길이 있다. 그러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진통과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일부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은 결과이다. 그것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받고 있다.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다.

첫째,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둘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잊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잊지 않고 다 아신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행위 일체를 간과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했어'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이 잊어버린 것을 주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방위적이어서, 사방을 다 보실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눈 뜨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구석이 없으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기억 용량'에는 제한이 없다. 사람은 얼마 전에 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다 기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른다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든든한 후원자시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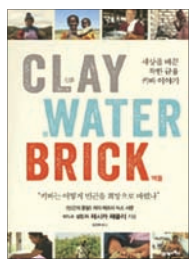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진흙 물 벽돌: 세상을 바꾼 착한 금융 이야기
제시카 재클리 | 21세기북스 | 134쪽



이 책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P2P 소액대출 웹사이트 '키바'의 공동 창립자인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키바는 빈곤 완화를 위해 '대출'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창업을 원하는 빈민들의 사연을 게시하면 전 세계에서 기부를 받아 소액을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저자의 이런 여정에는 '기독교 신앙'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예수전
민호기 | 규장 |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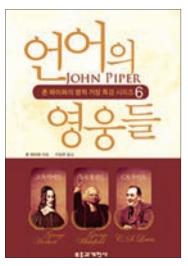
찬미워십 대표 민호기 목사가 채워나가는 오직 단 한 분을 위한 사운드트랙.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치열한 복음
김병삼 | 두란노 | 240쪽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왜 치열하게 살지 않는가? 왜 아직도 죄 앞에 관대한가? 교회가 파를 나누고 네편 내편 싸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음은 종교도, 고상한 학문도 아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도, 그리스도도 없는 교회에서 돈과 명예를 두고 싸우며 사탕 달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굴 것인가?

언어의 영웅들
존 파이퍼 | 부흥과개혁사 | 222쪽



조지 허버트, 조지 휫필드, C. S. 루이스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그것을 아름답게 말하는 것의 상호 관계를 보여 준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꾸준히 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말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을 다루면서, 그 노력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을 일깨워 그 아름다움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남자가 용감해야 할 곳은 세상만이 아니다

성경 속 아버지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후까지, 신앙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었다.

성경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유대인의 교육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교육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통로였다.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아버지로서 진정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가 무엇인지, 무엇에 용감해야 하고, 어떻게 용감해야 하는지 우리를 일깨운다.

성경적으로 충실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강한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읽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성경적이다. 6개 챕터로 된 책의 구성은 소그룹 모임에 사용하기에도 적당하다. 그에 따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를 복잡하게 다룬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은 아버지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6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본문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용감한 아빠
존 맥아더
넥서스CROSS | 232쪽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경 전체를 다루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디에 용감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가 무엇보다 먼저 지녀야 할 것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이다(204쪽).

책의 저자인 존 맥아더 목사는 미국 교계와 언론이 꼽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하나로,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다. 또한 그는 150여 권의 많은 책을 쓴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가 책을 통해 다룬 주제는 성경, 설교, 전도, 영성 등 다양한데 가정과 아버지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니 기대해도 좋겠다.

얼마 전 '용감한 아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아이를 돌보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크게 늘었으며 정부도 이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하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남자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용감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래서일까, 손에 받아든 책 표지에 '남자가 용감해야 할 곳은 세상만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조용준 기자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북스리뷰]

기도는 말씀으로 인도한다

기도는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자 우리가 해야 할 '노동'



오늘부터, 다시, 기도
도널드 휘트니
복있는사람 | 144쪽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로운 영혼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통로가 되고 그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식, 생활 수준이나 나이나 성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하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

필자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며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다. 교회에서는 모든 공적 예배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성도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 모아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도회 시간도 있다. 그런데 필자가 놀랐던 사실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하는게 아니라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는 하지만 기도생활이 전혀 없는, 기도의 무능력한 성도들을 보았을 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여 기도를 못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기도가 작아지고 약해졌던 것 같다.

실제로 기도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인데, 기도의 중요성만 강조했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많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은 바로 기도를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실제적인 지침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현대 교회를 보면 언제부턴가 기도를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교회 안에는 열광적이지는 않더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기도자가 작아지니 기도의 빛이 흐려지고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며 교회의 모습도 초라해지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저자는 진단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기도 방법이 잘못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사회 현실과 내가 처한 환경이라는 진부하고 따분하고 반복적인 소재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기도를 지치게 하였다고 정확히 지적한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시편으로 기도하기, 서신서로 기도하기 등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그가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방법은 간단한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이고 바른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기도이다. 기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기도에 열망이 있다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와 함께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사교를 포함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도자가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다 하여 그 기도가 자칫 감정만 발설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거나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기도에 대해 우리는 조심해야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편하게 하려고만 한다. 또한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 감정이 시원해지고 정리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참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신비를 맛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으로 은밀한 곳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황홀경을 맛보고 싶어한다. 또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무아지경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자 노동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해지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도이다. 또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여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더욱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는 귀한 연결고리이다. 기도는 우리를 신비와 무아와 황홀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작은 책,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적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신비를 경험하고 감정이 해소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일회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광적인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열망하게 한다.

이 책에 보면 이 방법으로 기도했던 자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소개한다. "마음이 길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기도하였다, 시간이 너무 짧다,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시편은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 기도했다, 진부하고 뻔한 것에 관해 더 이상 진부하고 뻔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다.

필자는 기도에 대한 책을 잘 읽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실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 또한 읽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 책이 저자가 유명하지 않아 책의 가치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필자에게 서평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성경적인 기도, 가장 바른 기도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었다. 저자가 가르쳐 주는 방법론이 도전이 되고 안심이 되었고, 실제 이것을 기도에 활용한다면 기도자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큰 능력이 되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필자는 이 작은 책을 기도와 신앙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자를 넘어 모든 교회에게 추천한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스리뷰]

저건 왜 이단이에요?

이단 문제, 복음주의 교단 전체가 모여 분명한 논의를



이단을 보는 눈
배본철
영성네트워크 | 374쪽

"목사님 어떤 게 이단이에요?" 성도들에게 가끔 질문을 받는다. '저건 왜 이단이에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난감하거나 곤란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분명히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집단들은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필자의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실제로 모호한 경우에 어설프게 추측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엉뚱한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단 문제를 판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잣대는 먼저 교리적으로 구원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그러나 성령론은 아직 우리 자체 안에서 매우 불안정적이기에, 섣불리 성령론으로 이단을 판단하는 것은 김기동의 귀신론과 같은 분명한 잘못들 외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단을 판명하는 기준은 교회론이다. 이것은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복음적 교회론의 일치성을 훼손하여 교계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될 때, 그들은 전체 교계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판명된 이단

고대교회의 대표적 이단들로 지목된 몬타니즘이나 도나티즘의 경우, 그들은 분명히 성령론과 구원론적 가치를 향한 강력한 갱신을 추구함으로 분명 회개와 개혁의 경종을 울리는 데 성공하였으나, 자신들의 가르침만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신들만이 정통교리에 서 있다는 식의 독선적 형태는 교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자신들만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독선적·배타적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등, 교회론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판명되는 안타까움을 낳게 되었다.

◈교권주의

다른 한편으로 이단의 정죄와 배척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의심집단을 평가하는 일부 교계의 태도도 온당치 않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정죄와 배척'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저자는 저자는 교회역사학자이면서 성령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본서가 주는 유익 중 하나는 바로 교회사적 관점에서 이단들의 역사와 그 문제점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교리적 내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것보다는 교회론적 독선과 독단적 행위들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므로, 교회의 개혁이나 갱신 운동들을 펼칠 때 연합성과 일치성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성령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방언, 계시와 예언, 귀신론, 성령론의 딜레마, 은사운동 대 복음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부분이 아니지만 앞으로 성령론의 입장에서 이단 문제로서 이러한 주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다루어가야 할 주제들임이 분명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갱신도 좋고, 개혁도 좋다. 그러나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된다. 반대로 정통과 보수도 좋다. 그러나 이 또한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될 것 같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학생모집

모집부문

신 학 대 학 교 신학과 (BA)–4학년

신 학 대 학 원
1) M.Div. 교역학 석사과정– 3년 / 96학점
2) M.A. 목회학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과정–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3년 / 48학점
5) Th.D. 신학 박사과정–3년 / 56학점

강 의 일 정

요일	시간	학과목	교수
화요일	7pm~9pm	바울서신	엘리야 김 박사
목요일	10am~12pm	신약신학	고영준 박사
	1pm~3pm	현대 교회사	민준기 박사
	3:10pm~5:10pm	기도학	김정복 박사
	5:20pm~7:20pm	현대신학 사상사	이경화 박사
	7:30pm~9:30pm	헬라어	송인 박사
토요일	10am~12pm	이미지를 통하여 성경 이해하기	송인 박사

*바울서신,기도학, 성경 이해하기는 평신도 청강을 환영합니다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러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213-272-6031, 213-235-6889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초대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잔치로...

환영합니다.
만남과 축복의 장소에 오심을...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제를 통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와 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배 안내

예배 요일	예배시간
주일 예배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매일새벽예배	매일 오전 6시

매주 목요일에는 프드뱅크로 성도들의 가정을 섬김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엘리야 김 목사 (213)272-6031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December 1, 2016 Vol. 79

Students, Faculty, Alumni Petition for 'Sanctuary Campus' at Fuller Seminary

BY CHRISTINE KIM

Students, alumni, and facult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re petitioning for the administration to designate the campus as a "sanctuary campus."

"Sanctuary campus" is a term that reflects the school's willingness to protect students, staff, or faculty who are undocumented immigrants and to protect their information from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As of Wednesday (November 30) afternoon, over 900 students, faculty, and alumni had signed the petition that was sent on November 21. The petition requested for the school to make public its support for and commitment to protect undocumented students, staff, faculty, and their families; to refuse to release the immigration status of students, staff, and faculty; and to refuse to submit to immigration officials.

"Jesus Christ commanded us to love God and neighbor—thus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seek the wellbeing of all people, particularly those who are poor, marginalized, discriminated against, and mistreated. Furthermore, Jesus tells us in Matthew 25 that however we treat the least of these among us, we have treated him," the letter reads.

This move comes in the wake of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vow to deport up to 11 million immigrants and to end a program by the Obama administration call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program, which grants temporary relief from deportation to young people who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President Barack Obama says he will "urge the President-elect and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o think long and hard before they are endangering that status of what for all practical purposes are American kids."

"These are kids who were brought here by their parents. They did nothing wrong. They've gone to school. They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flag. Some of them have joined the military. They've enrolled in school. By definition, if they're part of this program, they are solid, wonderful young people of good character," Obama said in a statement on Monday.

Should Fuller establish itself as a "sanctuary campus," it will join schools like Wesleyan University in Connecticut and Reed College in Oregon that have already designated themselves as "sanctuary campuses." Similar petitions are circulating in college campuses across the country, like Harvard, Yale, Emory, Columbia, University of Minnesota, and numerous others.

From Korean Immigrant Church, African American Church, to Church Planting, 'God Provides'



Pastor Stephen Chong is the lead pastor of Revival Church, located in Irvine, CA. This photo shows Chong preaching at a revival event at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in September, 2016.

BY RACHAEL LEE

When asked about the transitions throughout his journey in ministry, Pastor Stephen Chong says, "We always take a step of faith first, and then God provides."

On multiple occasions, Chong felt led to take a step when he had no idea where it would lead him, nor where the resources would come from. When he was settled down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e East Coast, he and his wife felt that God was asking them to step down from that position and move to Southern California, though he had no offers or positions waiting for him. When he and his congregation were experiencing fruitfulness at Sa-Rang Community Church in Anaheim, God said to him, "If you love me more, walk away from this platform. Give it up." All of those times, it was only after Chong had taken the step of faith that the new doors opened.

Today, Chong serves as the lead pastor of Revival Church, a congregation of about 130 people who are mostly pan-Asian but hoping the church would become more and more diverse. Revival Church began as a church plant in October of 2013.

"We just asked God, would you start gathering some people," Chong recalled. And soon thereafter, people approached Chong saying that they had visions or dreams regarding the church plant.

Chong believes Revival Church is a realization of a vision that he himself received when he first began his ministry journey in 1991 — that Chong would lead a multi-ethnic congregation. But his journey leading up to his current position involved many unexpected turns and a diverse range of experiences, including serving at an African American church (Beth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Boston), the English ministrie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and church planting.

"God's never late, he's never early," said Chong. "He's a God of perfect, kairos timing. And we've been trying to be faithful wherever God planted us, being pursuant to the Lord."

In an interview, Chong shared about his experiences in the various different contexts he served in, as well as the processes he went through in transitioning between those contexts. The interview has been edited for clarity and brevity.

It isn't easy for anyone to just get up and leave when there's nothing else waiting for them. How were you convinced during those points of transition that it was right to take that step?

In the case of leaving Sa-Rang for example, we were seeing people coming to Christ every Sunday at that time, and I actually thought that maybe God will make Holy Wave [the English ministry at Sa-Rang] multi-ethnic and fulfill that vision he had given me. But during a New Year's Eve service, God spoke to my wife and I, 'I'm calling you out. I'm releasing you.' I was 45 at the time, and it was the scariest, most daunting position I've ever been in. How am I going to provide for my wife who is no longer working, my kids? My daughter has special needs — how would I pay for medical insurance? This was quite daunting.

So we asked for multiple confirmations. And he said, 'If you love me more, walk away from this platform. Give it up.'

At the time, I didn't even think of church planting. It was the last thing I wanted to do because I knew it was so hard. But God said, 'You know the one thing you didn't want to do? Church planting? That's what I want you to do.' And again, we asked for multiple confirmations, and God made it clear to both my wife and I through multiple Scriptures and confirmations.

When you knew that you had to church plant, were there any resources in particular you secured in order to do so? Denominational support, a church planting team?

We did start gathering families, but we had no resources in particular.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resources available though different denominations and networks, and many denominations are huge on diversity church plants. Those are all wonderful opportunities. But for me specifically, God made it clear that that would not be our route.

I would like to add something though,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church planting. I do believe in it — it is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evangelism. Not every church is going to reach everyone, and if a church thinks they're going to reach everyone in the community, they are being blind and prideful. Each church is a different expression of God, so if a new church is planted, praise be to God. However, the only thing I would add is that I believe pastors should prayerfully ask and discern whether they are called to do a church plant. Some are called to go to an established church and take it to the next level, while others are called to be more entrepreneurial and to pioneer. I just would discourage pastors from thinking of church planting just because they are coming out of a difficult context. They should make sure they are healed and to get a sense of their identity and calling first.

Pastor Stephen Chong of Revival Church shares stories of his ministry journey through multiple contexts

What led you to serve at Bethel AME Church during your early years of ministry?

After the L.A. Riots happened in 1992, I started seminary that same year, and I felt the Lord asking me to humble myself and to learn from the African American church. So I went to Bethel AME in Boston, with my parents' reluctance and resistance at first. I was 23 or 24 at the time. And I completely fell in love with that church. People welcomed me with open arms and treated me like a son, even though I was the only Asian American there. I was mentored by Rev. Ray Hammond. I drove over an hour to go to that church, and I was even thinking of serving in the African American church long-term.

"God's never late, he's never early. He's a God of perfect, kairos timing."

You say that you went with your parents' resistance 'at first.' Did your parents' mind about Bethel AME change?

You know, racial reconciliation — it's really about building friendships. My parents, with their own preconceived biases, when I took them to the church, they saw the love, and they saw that relationship I had with Rev. Ray Hammond and the others. Their walls came tumbling down. And when my father passed away several years ago, my mother wanted Rev. Hammond to come and speak, and he came and gave a beautiful eulogy. And I think just through that, I was able to bring racial reconciliation to my own family.

What do you think are some lessons the Korean church can glean from the African American church? For instance, one of the difficulties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point to is the dynamic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Did you see that dynamic at all in the African American church?

We have to strive for what God's calling us to in an honoring way, and that includes honoring your father and mother. As I study the Korean immigrant church landscape, that honoring part is not just for biological but also spiritual. When you honor someone, whether they deserve it or not, God is honored in our hearts.

I've never been at a church like Bethel AME where the sons can grow up to be fathers in the same house, and thrive. The problem for many Korean churches is, are the EM pastors allowed to be fathers and to lead their own households? They [the KM and EM] could still live under the same roof if that's their calling. But the sons have to be allowed to be their own fathers, and have room to make mistakes. The parents also must honor the kids for who they are. If they're called to live together, there has to be a mutual respect and honoring of one another.

At Revival Church today, what are some ways that you and the leadership have been trying to work at racial reconciliation, mutual honoring, and intentional relationships as you have seen as strengths in your previous experiences?

I'm very grateful that our congregation is all-embracing, and there is that intentionality in that we do always emphasize that we need to be welcoming and to build new relationships. We try to communicate our church family vision of being a multi-ethnic church on our website, in our membership class, and sometimes from the pulpit. There has to be an intentionality in saying, 'I'm not going to go to my comfort zone.' To say, 'Hey, the blood of Jesus is greater than those differences. We're going to be in heaven with this brother and sister. Let's try to reflect God's family here on earth. Let's try to build not just casual acquaintances but friendships.' Because of that, our church is constantly being reminded to be open to new relationships and to show grace.

Offering Warmth to Those Who Are Homeless in Atlanta

BY SUYOUNG YOON

Mission Agape held its third annual campaign called 'Giving Jackets of Love' for individuals who are homeless and must live out in the cold winter streets.

On Sunday, volunteers and staff of the non-profit prepared food for about 600 people to celebrate Thanksgiving with those who are homeless, and to give away 500 winter jackets.

The event took place from 4 PM at Union Mission Center in downtown Atlanta and in other locations in the city.

"No matter how hard the current situation might be, if we don't give up and keep moving toward our dream, we will be able to live a different life," said James Song, the executive director of Mission Agape, during the event.

Mission Agape has been partnering with Hosea Feed the Hungry since 2009 to host events on Martin Luther King's Day, Easter, Thanksgiving, and Christmas, offering food and a time of fellowship to those who are homeless.



Members of the downtown Atlanta community who are currently homeless were able to receive warm winter jackets from Mission Agape earlier this mont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Abortion Rate Lowest in Decades, 21 Percent Decline Since 2004, According to CDC

The abortion rate has continued to decline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nd decreased to its lowest level in about 30 years, according to a new report.

The number and rate of abortions record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fell to the lowest level in decades in 2013 when the count was last tallied in the recently released report.

The report cites data from 47 states. States of Maryland, California, and New Hampshire were not included.

The abortion rate fell by five percent between 2012 and 2013, while decline was observed in 41 states ove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3, the count of legally induced abortions stood at 664,435 in the states from where data was included for the study. But the total number of abortions in all 50 states in 2013 were estimated to be around 900,000.

The same year, 12.5 abortions were reported for every 1,000 women in the age group 15-44 years, and 200 abortions per 1,000 live births, according to the report.

Between 2004 and 2013, the abortion rate fell by 21 percent, and by as much as 40 percent since 1980.

The CDC report said that a majority of abortions (58 percent) were carried out by women in their 20s. Only 11.7 percent of the abortions were attributed to women and girls under 19.

The number and rates of abortion varied among different states. Mississippi with only one functional abortion clinic recorded the lowest number of abortions, only 3.6 per 1,000 women. New York was the state with the highest number of abortions, 24.3 per 1,000 women.

About 91.6 percent of the abortions were performed at or before 13 weeks' of gestation, 7.1 percent between 14-20 weeks, and some 1.3 percent at 21 weeks' or above.

As many as 60 percent of the women who chose abortion had given birth to at least one child, and 15 percent of the women were married.

Federal Judge Blocks Department of Labor's Overtime Rule

A federal court in Texas has halted the US Department of Labor's rule to extend overtime pay to over 4 million salaried employees who fell under the proposed threshold cover of $47,500, over and above the old threshold of $23,660.

The rule also required that the salary threshold be revised every three years, and was to take effect from December 1.

About two months ago, 21 state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abor Department and requested a nationwide injunction to prevent the rule from taking effect. They stated that the rule raised the threshold too high, also by providing automatic updates every three years.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business groups also filed a similar lawsuit which was consolidated with the states' case because it raised the same questions, such as legality of the law and its impact on businesses.

U.S. District Judge Amos Mazzant sided with the states and said that DOL overstepped its authority in issuing the rule that the rule would have rendered "irreparable harm" to businesses should the preliminary injunction not be imposed.

Supporters of the rule claim that it would have benefited millions of Americans and improved their livelihoods.

They say that employees in the salary bracket of $23,000-$47,000 (approx.) are making only as much as minimum wage after factoring in all the hours put in for the job.

But according to critics, this rule will unjustly affect small businesses and non-profits.

Opponents also argue that the companies will not be able to hire as many full time employees, and in worst cases, may have to lay off their employees and hire them on hourly jobs.

The DOL released a statement disapproving the court verdict and said that it was considering to take the case further.

"We strongly disagree with the decision by the court, which has the effect of delaying a fair day's pay for a long day's work for millions of hard-working Americans," the department said.

"The department's overtime rule is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inclusive rulemaking process, and we remain confident in the legality of all aspects of the rule. We are currently considering all of our legal options."

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was one of the organizations which opposed the rule. Nancy Hammer, a senior government affairs policy counsel for SHRM said that SHRM "played a key role in highlighting the difficulties of the rule and raising awareness of its negative impacts on the workplace including its impact on workplace flexibility and employee morale."

"The court's decision is welcome news for SHRM members and employers who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impacts of the rule-especially nonprofits and smaller organizations," Hammer added.



Over 170,000 attended the 'Love Joy Peace Festival' that took place in Yangon, Myanmar from November 18 to 20. (Photo courtesy of Franklin Graham's Facebook)

Thousands Make Decisions for Christ at Franklin Graham Festival in Myanmar

About 170,000 people attended the three-day Gospel event 'Love Joy Peace Festival' and heard Franklin Graham preach at the Myanmar Convention Center in Yangon between November 18 and 20, according to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The BGEA also reported that 7,600 people made decisions for Christ during the weekend event.

The event was held with the help and participation of 440 churches across Myanmar. Many attendees had come from remote places and made it to the venue after a two-week's journey.

The participating churches said that they had prayed unceasingly for over a year for this event, and had also brought friends and neighbors as guests.

Graham gave the messag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He died and took sins of mankind on the Cross, and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are forgiven of their sins.

"Many of you here tonight are going through your life blindly. And if you don't change the direction of your life tonight, your life could be destroyed. But tonight you have a chance to come to Jesus Christ," Graham said on the closing night of the festival.

"He will cleanse your heart. He will guide you and direct you. And if you're willing to believe by faith in Jesus Christ tonight, He'll forgive your sins. You can have a new life and a new beginning," he continued.

The idea to hold a large-scale evangelistic event in Myanmar took shape in 2013, when BGEA was holding a similar event in Chiang Mai, Thailand. A large donation for the event was brought in by Christians from Myanmar which is among the poorest countries of Asia.

"There is no way this could have come together-no way this could have come together--without God's hand in it," said Sean Campbell of BGEA-affiliated Samaritan's Purse.

Vietnam's New Law May Restrict Religious Freedom and Practice, Activists Say

Vietnam passed a new 'Law on Belief and Religion' last week which may curtail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untry,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bill was passed with 84.58 percent of votes.

The details of the law have no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but activist organizations fear that the legislation will compel religious organizations to register before being able assemble at houses of worship and practice their faith.

The draft of the bill was introduced last year and was expected to uphold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but the direction of drafting was observed to be more inclined towards controlling religious organizations in Vietnam.

"When the possibility of a law on religion was first mentioned, some were hopeful that it would address the obstacles to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the existing regulations," said Mervyn Thomas, CSW's Chief Executive. "Unfortunately, throughout the drafting process, the law continued to focus o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religious activities,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Vo Tran Nhat, executive secretary of the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also voiced the same opinion that the law inhibits freedom of religion rather than promote it, as claimed by the government.

"They're going to adopt a new law, a law on religion. This law is not a law on religion; it's just a law on how to manage the control of religion," he told World Watch Monitor. "The regime just says you have the freedom of religion [only] if you respect all the conditions of the party. It means, if you want to organize an event, you have to demand permission. If you want to create a church, you have to pass an exam, of several years - I think it's about 10 years, or 5 or 10 years. And if there is no problem, then you can have the [status] of recognized religio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행사기간 12.01-12.14.16

Wholesale Restaurant Supply

Central Ave

Cash & Carry

GRAND OPENING

400불 이상 구매시 타올 디스펜서 증정

200불 이상 구매시 엘리자베스 아덴 뷰티 세트 증정

T. 213-251-1070

352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구, 아씨수퍼 지하)

[OPEN HOURS] M-F 6:30 am - 6:00 pm / Sun 8:00 am - 4:00 pm

그로서리





컨테이너/세제







정육





일부 세일품목에 한하여 수량제한이 있으며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광고제작상의 오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